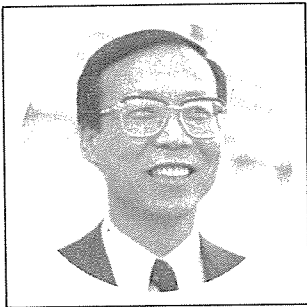


情報化 社會의 걸림돌



白 哲 基

〈情報文化센터 교육훈련부장〉

아침 출근길 길다란 차의 행렬 속에 묻혀살다 보면 전후좌우가 꽉막힌 좁은 공간이 그리도 답답하고 지루할 수가 없다. 좀더 빨리 그리고 멀리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어느새 또다른 벽이 생겨 제구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언언가 시원한 묘안이 없을까 하는 바람이 점점 간절해지는 요즈음이다.

밤이 길면 꿈도 길어진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 계속되면 그 꿈은 점점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인류사를 들여다 보면 큰 변혁의 바람이 밀려올 때는 으레히 그전에 어둡고 지리한 준비기간이 있어 현실을 훌쩍 뛰어 넘을 만한 강한 개혁의지를 길러왔다. 산업혁명이 그랬고 이제는 정보혁명에 대한 갈망이 새로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도 산업사회의 장점이나 혜택보다는 그 역기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위기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도시문제, 빈부격차와 분배문제, 공해와 자원문제, 노사문제,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문제 등등. 미래학자들 중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생리로는 곤란하고 사회구조나 생활양식에서 근본적 혁신이 일어나는 정보사회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때문인지 정보사회는 곧 만능사회 처럼 과장되기도 하고 있다.

자기 것은 자세히 볼수록 나쁜 것 어려운 것만 더 크게 보이나, 남의 것은 모를 수록 더욱 장미빛으로 아름답게만 듯보이게 마련이다.

사실 말이지 정보사회가 가는길은 잘만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를 받아드리는 인식의 폭은 다분히 환상적

일뿐 좁고 빈약하다. 우리 주변에서도 학생에서 직장인까지 또는 가정주부까지 컴퓨터 안배우면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야단들이다. 컴퓨터를 미리 배운다고 나쁠 것이야 없다. 그러나 컴퓨터 좀 안다고 정보사회 적응력을 졸업한 것도 아니요, 컴퓨터 좀 모른다고 정보사회의 미아로 전락해버리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가 진행되면 오늘의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하게 되나를 알고 미리부터 계획성 있게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며, 물리적으로는 정보를 실어나를 정보망이 그 사회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려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 통신망에 컴퓨터등 단말장치가 수없이 줄줄이 매달려 있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 대부분의 일이 처리되는 체제가 관습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행정에서 사무실, 공장 업무는 물론 학교와 가정도 달라져야 한다.

정보사회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정보가 제일 중요시되는 사회, 인간과 조직이 그물처럼 엮어진(Network)사회, 신용사회, 종이 필요없는 사회, 뉴미디어사회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실은 그 모두의 특징이 함유되어 있는 종합적인 사회이다.

우리나라도 10년이내에 본격적인 정보사회에 들어간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형상의 산업구조나 설비등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사회제도나 관습의 변화가 체질적으로 못따라 오고 있다. 이상스럽게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도시팽창은 멈출줄을 모르고 땅투기 집투기는 농경사회보다 더욱 극심해져 가고 있다. 도시발

달은 산업사회 유물이며 부동산은 농경사회의 중심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물질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정보사회가 지적에 왔는데도 오히려 옛날로 되돌아가는 가치의 역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도시가 비대해지면 기껏해야 위성도시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나 늘어나는 교통량을 풀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새도로를 만들고, 시차제 출근에 자가용 정원업수등의 개선안들만이 줄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현행 사회구조를 기본틀로 하여 문제를 풀려는 답답한 해결책이요, 궁색하고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한계를 알리는 심상찮은 경종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없이 끝없는 문제로 되풀이 될 것이다.

정보사회는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이다. 어느 한쪽만 앞서간다 해서 이루기도 어렵고, 다른쪽을 생각하지 않고하는 정보화도 거의 실패하기 십상이다.

공무원, 학자, 기술자, 선생, 예술가 등 모든 분야 사람들이 모든 부문에서 함께 새로운 제도와 사고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받아들이는 수용태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회변화나 개혁은 원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미묘한 갈등속에서 또는 스스로의 회의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진 예가 대부분이다.

산업혁명 역시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바른 발전의 방향으로 키를 놓친적은 없다. 동력의 발명이 생산방식에 획기적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는 운동이 한참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산업혁명기 영국의

직물공업지대에서는 거의 전국에 걸쳐 러다이트 운동이란 기계파괴 운동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났다. 기계생산이 숙련공을 비롯한 기존체제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을때에도 영국에서는 기존의 역마차업자들의 압력에 부딪혀 한때는 자동차의 보급이 중지된적도 있었다.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철도부설이 본격화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정보화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의 과정을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환경도 그동안 정보화의 기류를 타고 알게 모르게 상당한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정보망을 이루는 기본설비인 전화가 전국에 1300여만 대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이 단일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세계의 자유화, 개방화의 물결에 맞추어 우리사회도 점점 국제화, 자유화가 촉진되고 있다.

정부행정이 정보망에 묶이기 시작했고 모든 기업이 자동화계획을 다투어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국민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대형서점과 백화점과 여행업소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판매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 방송국, 잡지사, 학교를 위시하여 중·소기업체에서도 업무별로 프린서의 활용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업무량이 계량화되고 사무실이 더 비싸지면 재택근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주 밝다. 이런 변화는 도시집중의 주요 원인인 직장, 학교, 문화혜택, 시장과 의료문제에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의 편익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시대는 세계가 바로 이웃이 되는

시간과 거리가 극복된, 직접가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가 쓰는 개성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사회제도도 여기에 맞게 재편성되면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사회의 기반이 우리나라에도 상당수준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폴러」는 말하기를 지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맨(Gun Man)이나 뱅커(Banker)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보화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중요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안되고 국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도전의지와 그에 걸맞는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되면 새로운 사회에의 걸림돌인 고루한 관습과 제도의 틀도 서서히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의 병폐인 학벌, 문벌, 지역의 벽이 물러서게 될 것이며 교육이나 도시기능도 순탄하게 지방으로 분산화될 것이다. 그 때쯤 되어야 우리생활도 지리산 꼭대기에 아담한 초막을 짓고 컴퓨터 네트워크로 불편없이 일하며 자연을 벗하는 꿈같은 시절을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의 서울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차량으로 가득찼던 도로는 불품없이 넓어 보이고 멀대같은 비딩들의 우중충한 모습들이 너무도 황량하고 속되게 보여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덜댈지 모른다.

“국민세금으로 영똥한테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큰 도로, 큰 건물들만 잔뜩 만들어 놓았으니, 그때 한치 앞을 못내다 보는 정치가, 행정가가 한심할 뿐이다”. 이런 시절이 꿈아닌 현실로 어서 왔으면 좋겠다.